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북부신문 4면

강북구의회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비심사를 집중 심의하며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군성 위원장과 김도연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심 의원, 이순영 의원, 강남연 의원이 활동했다.

유군성 위원장은 “위원들의 많은 조언을 참고하며 2014년

도 3,560억 원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가능한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결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북구의회에 올라온 강북구청의 201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69억 6천여만이 증가한 3,561억 1천여만 원으로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대폭 증액으로 인해 구비분담금이 증가돼 실질적인 예산편성의 내용은 더욱 나빠진 상태였다.



▲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모습.

시사프리신문 12면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예산안심사 마무리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2014년도 강북구 예산안을 확정 지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군성 위원장, 김도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영심 의원, 이순영 의원, 강남연 의원 등 총5명의 위원들이 지난 11일~12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 심의를 한 후 13일 최종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했다.

구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강북구 예산은 3,663억 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북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한정된 예산을 주민복지 향상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과 의견을 듣는 등 합리적

인 예산이 배분되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차수를 변경해 다음날 새벽 3시에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억1,848만 원을 근로유지 자활사업에, 19억3,669만 원을 장애인 복지지원에, 7억7,081만 원을 사회단체 지원 등에 편성했으며, 동 문화행사지원 보조사업 추진 시 지원액 상한선을 정해 시행하고, 노인무료급식 사업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층 어르신의 식사제공에 낮은 가격이란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외국산 들기름, 참기름, 고춧가루, 콩나물, 김치 등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할 경우 사유를 세세히 기재하고 매입단가, 강북구민의 고용,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저소득 가정 김장 담가주기 지원비 2,250만 원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진행을 위해 배추 등 김장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 시 좋은 재료가 선정 구매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지난 17일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됐다.

유영일 기자